

特許管理는 企業經營 戰略의 核心



〈柳 明 鉉 과장〉

▲企業經營에 있어 特許管理란 무엇을 뜻합니까?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出願에서 登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權利設定업무 및 特許權 사후관리업무, 기업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工業所有權을 國內外에 技術로서 판매하는 업무와 기업내 相關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特許技術情報의 수집·분석·제공등은 물론 타인의 特許出願에 대한 異議申請과 자사의 特許權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감시하는 업무, 職務發明制度 운영 등의 業務와, 지금은 Computer Program 管理業務까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특허전담부서의 기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特許管理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特許廳은 10여년간 전국 企業에 特許專擔部署 設置를 勸獎해 왔으며, 그 결과 이제 전국의 5백60여개 企業 特許專擔部署를 設置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企業들이 사실상 우리 産業 및 經濟를 主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特許廳 指導課 柳明鉉과장을 찾아 우리나라 企業의 特許管理 全般에 대해서 알아본다.

◎현대는 바야흐로 技術競爭時代이며 새로운 기술의 끊임없는 創造와 開發없이 는 어느 기업도 성장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치열한 技術競爭時代에 生存할수 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선진각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自國의 개발기술을 다른나라에도 特許出願하여 權利를 획득, 세계시장을 독점함으로써 知的所有權의 국제적 분쟁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각종 신기술정보활용 및 개발기술의 보호와 국제시장에서의 獨占權을 얻기위해 工業所有權의 효율적인 활용 및 管理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工業所有權을 기업 經營政策決定과 經營戰略의 주무기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우선 工業所有權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관리 전담부서설치가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企業의 特許管理 동향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77년 까지만해도 전국에서 5개 기업체에만 特許專擔部署를 설치 운영할 정도로 特許管理 불모지였습니다.

特許廳이 獨立廳으로 되면서 우선적으로 기업이 特許管理에 눈을 뜨게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단되어 '78년부터 기업의 特許專擔部署 설치를 적극권장하는 한편, 기업의 特許管理실태를 파악하여 特許管理실상을 면밀히 분석, 체계적으로 特許管理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特許廳에서 매년 特許專擔部署 설치를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공업소유권의 출원권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한 기업도 '89. 8월말 현재 5백60여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많이 증가된 실정이지만 실상 特許업무만을 전담하는 特許部, 特許室, 特許課 단위의 부서를 갖고 있는 업체는 55개 업체로서(약 10%정도)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開發部, 企劃室, 法制部, 總務課, 營業部 등 타업무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1~2명 정도가 特許業務를 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特許管理 수준은 극히 낮은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企業에 알맞는 이상적인 特許管理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에 있어 特許管理 활동은 經營企劃부문, 技術開發부문, 生産販賣부문과 유기적 협조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협조정도에 따라 企業의 特許管理狀態는 다섯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0단계 : 기업의 目標과 전혀 관계없이 사내의 發明者가 工業所有權을 出願하고 權利를 획득하는 特許管理부재상태를 말하며,

1단계 : 特許專擔部署가 기업내에 설치되어, 사내 發明者의 出願·登錄등의 단순관리서비스 기능만을 담당하는, 즉 充實히 服從하는 兵士型이며,

2단계 : 特許專擔部署가 개발부서의 개발에 관련되는 技術情報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병행하는 단계, 즉 士官型이며,

3단계 : 特許專擔部署에서 개발부서의 出願내용을 평가하고 기술개발방향을 인도하며 出願에 따른 補償의 실시와 인사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진 단계로서 참모형이라고도 하며,

4단계 : 마지막으로 企業戰略과 特許管理가 완전히 Match되어 있는 최고의 特許管理상태를 4단계로써 指揮官型이라고 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特許管理 상태는 물론 指揮官型인 4단계일 것입니다.

선진국의 우수기업들은 모두 3단계 또는 4단계에 속하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美國의 IBM은 세계각국에서 생산되는 자사의 경쟁제품을 일정기간마다 수거하여 特許와 著作權 침해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기업의 전략에 연계시키는 대표적인 4단계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日本의 도시바는 세계각국에서 出願·登錄되는 自體關聯特許를 도표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향후 기술 개발 및 판매전략을 수립합니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지만 도시바의 Patent Map에는 구미 경쟁기업의 特許出願, 登錄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시장에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우리기업의 特許出願내용까지도 상세히 입력하여 분석검토하는 위치에 까지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의 우수기업들은 工業所有權制度의 완벽한 인식과 함께 이를 통한 시장지배전략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국내 일부기업만이 2, 3단계에 위치하고 있을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고경영자층으로부터 말단사원에 이르기까지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인식이 거의 결여된 "0" 또는 "1"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우리보다 더 발전된 特許管理技法을 활용하고 그것을 최대의 무기로 활용할 때 우리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험난한 국제 무역장벽을 헤쳐나가지 못함은 물론 國際技術競爭에서도 敗北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工業所有權의 관리업무는 法律的, 技術的으로 전문성이 매우 높은 업무이고 단기일내에 경험이 축적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부터 우리는 工業所有權管理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特許管理 활성화를 위한 特許廳의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廳에서는 기업의 特許管理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경영총과의 工業所有權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特許專擔部署 미설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권장 및 안내책자 제작 배포, 職務發明補償制度의 실시권장, 각종 特許情報의 제공, 特許專擔要員의 研修, 기업의 요청시 特許專門家 현지 파견지도 등 特許管理역사가 일천한 국내기업실태를 고려 우선 工業所有權 인식제고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중 몇몇 尖端技術관련 업체의 特許管理는 선진국 수준 못지않게 잘 운영하고 있으며 特許廳에서는 이들 模範特許管理業體를 모델케이스로 Patent Map활용요령, 特許管理사례집등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特許管理가 정착되기까지 年次的으로 特許管理지원사업의 내용도 국내기업과 國際的인 환경등의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企業特許管理 活性化 事業計劃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特許管理 專擔部署 설치기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미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하여 特許管理를 잘 하고 있는 업체도 있으나 기 설치업체중 대다수가 特許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기업의 현재상황에 따라 우선은 많은 인원과 독립부서가 필요없는 단계일지라도 特許管理업무는 전문기술 및 다년간의 경험을 요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장래에 대한 투자側面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몇개업체의 特許管理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特許技術情報(特許公報類등)를 特許專擔部署와 有關部署에서 활용하지 않고 일반도서와 같이 그냥 서가에 장식용으로 비치되고

있어 최신기술정보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아니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特許情報를 입수하기 위한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관련 特許情報 및 기술동향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현대의 치열한 技術競爭時代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當當한 勝利者가 될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企業이 나름대로 冒號를 研究한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도 特許專擔部署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보다더 절실하고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직도 特許管理 專擔部署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아직까지 特許專擔部署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분 연간 出願件數도 적고 최신 기술의 特許權紛爭도 거의 없는 분야의 중소기업체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도 特許管理를 잘하여 일약 거부가된 사례가 많듯이 중소기업일지라도 신기술개발의 權利化로 상품시장의 독점을 획득할 수 있는 特許制度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特許系·特許課 단위의 업무를 개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企劃業務, 總務業務, 研究業務들과 병행하여 特許업무를 겸하는 직원을 두어 경험을 쌓게하고, 각종 工業所有權에 대한 教育研修등을 통해 特許업무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擴大 發展시켜 企業의 發展에 寄與케 하는 것도 좋은 方案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企業을 한다면 工業所有權을 떠나서 企業經營을 생각할수 없는 時代가 現代의 情報化社會이므로 유능한 專門人力으로 構成된 特許專擔部署를 設置運營하여 國內뿐만 아니고 全世界를 재패하는 우수한 企業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吳錫子記>